



‘펄펄’ 박지성 “10골 넣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1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아스널과 2010-20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있던 전반 41분 헤딩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 개인 최다 6호골...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 득점

아스널전 헤딩 결승골... 맨유 선두탈환 이끌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시즌 개인 최다 6호골을 터뜨리며 맨유의 선두 탈환을 이끌었다. 박지성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아스널과 2010-20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있던 전반 41분 루이스 나니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수비수 다리를 맞고 굴절되자 바로 머리로 받아 왼쪽 골망을 갈랐다. 지난달 28일 블랙번과 15라운드에서 시즌 5호골을 넣은 박지성은 이번 골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진출 이후 시즌 개인 최다골인 6번째 골맛을 봤다. 이에 따라 박지성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정규리그 4골 1도움, 칼링컵 2골 1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도움을 포함해 6골 4도움으로 늘었다. 박지성은 아직 6골로는 골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기색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10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지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여준 꾸준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이를 수 있는 목표라고 본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팬광하게 흐르던 승부는 박지성의 전반 헤딩 선제골로 단숨에 맨유 쪽으로 넘어왔다. 나니가 전반 41분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

로 날카롭게 올린 공이 수비수 다리를 맞고 굴절돼 공중으로 뜨자 골문 앞에 서 있던 박지성이 재빨리 머리로 받아넣었다. 박지성이 머리로 방향을 바꿔 놓으며 강하게 때린 공은 골키퍼 오른쪽 어깨를 넘겨 그대로 골망에 꽂혔다. 정규리그 4호골이자 개인 최다 6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맨유는 후반 들어 아스널의 파상공세에 다소 밀리는 듯했지만 골문 앞 침착한 수비와 관데르 사르의 선방으로 단단히 골문을 잡았다. 맨유는 이날 박지성이 쏜 결승골로 1-0 승리를 낚아채 9승7무(승점 34)로 아스널과 맨시티(이상 승점 32)를 제치고 단독 1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사랑 나누는 ‘닥터 마린보이’ 1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세종병원에서 의사 복장의 마린보이 박태환이 심장병 치료를 위해 중국에서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빛낸 스포츠 스타 “박·태·환”

한국갤럽 조사... 박지성 3위

‘마린보이’ 박태환(21·단국대)이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0년을 빛낸 스포츠 선수’ 설문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거주도를 제외하곤 만 13세 이상 남녀 170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2.4%포인트, 95%신뢰수준) 박태환이 61.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진한 탓에 단 14.5%의 지지만 얻어 3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치러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와 200m, 4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거머쥐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3관왕에 올라 명예를 회복해 지난해보다 무려 47.1% 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고 올해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괴거쟁’ 김연아(20·고려대)는 50.0%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김연아는 올해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이후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불화설에 휘말리며 그랑프리 시리즈에도 출전하지 않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35.6%로 3위를 차지해 4년 연속 3위 안에 들었다. 박태환과 김연아, 박지성은 2007년 이후 4년 연속 톱3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20(홀런)-20(도루) 클럽’에 이름을 올린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16.2%로 4위를 차지했고, 광주 아시안게임 여자 역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은 5위(7.7%)로 2008년 이후 다시 5위권에 진입했다. 미국프로야구에서 아시아 투수 최다승(124승)을 올린 박찬호는 6위(3.6%), 박지성과 함께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청용은 3.0%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지소연 “반드시 팀 우승 이끌겠다”

권은솜과 함께 고베 입단

일본 여자프로축구 무대에 진출하는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공격수 지소연(19)이 소속 팀 아이나 고베를 반드시 우승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지소연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베와 입단식 행사에서 “일본 축구 스타일을 좋아했다. 원하는 일본 팀에 가게 돼 기쁘다”며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에 보탬이 되는 플레이를 하겠다. 고베가 우승하도록 이끌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일본팀 비디오를 보며 공부할 때가 많다. 일본 무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와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지소연과 함께 맹활약한 미드필더 권은솜(20)도 이날 함께 고베 입단식을 치렀다. 권은솜은 “첫 프로 진출을 해외로 하게 돼 기쁘다. 타국 생활이지만 소연이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활약할 테니 꼭 지켜봐달라”는 의지를 내보냈다. /연합뉴스



아이나 고베 입단식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티팅하고 있는 지소연(왼쪽)과 권은솜.

고베 구단을 대표해 참석한 기우치 다케오 구단 총괄매니저는 양옆에 앉은 지소연과 권은솜에 대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소연은 U-20 월드컵 때 활약이 눈부셨다. 독일 경기에서 보여준 골은 환상적이었다. 그때 이미 눈도장을 찍었다. 권은솜은 우리 팀에 새로 부임한 감독이 한국에 현지 시찰 갔다가 대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온 케이스다. 몸집이 작은 데도 정말 잘 뛰더라”며 칭찬을 거듭했다. 2001년에 설립돼 2005년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승격한 고베는 올 시즌 1부리그에서 4위를 거뒀다. /연합뉴스



▶운빛가람 ‘대표팀 룸메이트’ 지동원▶

신인왕·아시아컵 주전 ‘동상이몽’

한국 축구의 희망 지동원(19·전남 드래곤즈)과 운빛가람(20·경남 FC)이 ‘동상이몽’에 빠졌다. 내달 7일 개막하는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위해 호출된 대표팀 예비등록 선수 23명이 지난 13일 제주도에 모여 합숙훈련에 돌입했다. 2010 프로축구 신인왕에 도전하는 지동원은 강력한 라이벌 운빛가람과 한방을 쓰며, 신인왕과 아시안컵 출전이라는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다.

다시 한 번 조광래 감독의 부름을 받은 지동원은 대표팀의 막내다. 1991년 생인 지동원은 광주 아시안게임에서도 막내였다. 그러나 동메달을 놓고 만났던 이란과의 대결에서는 막내 답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며 축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동원은 이란전에서 2-3으로 뒤진 후반 막판 연달아 두 골을 몰아넣으며 극적인 역전골의 주역이 됐다. 지동원의 스트라이커 본능은 이미 K리그

를 통해 검증됐다. 프로무대에 뛰어들은 시즌 26경기에서 나와 8골4도움을 기록하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신인왕을 노리는 지동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한이불을 닮은 경남의 미드필더 운빛가람. 올 시즌 29경기에서 출전한 운빛가람은 29경기에서 9골 7도움을 기록했다. 성인대표팀에 처음 발탁되었던 지난 8월에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성인대표팀 데뷔골을 터뜨리며 조광래호 출범 첫



승을 장식, ‘조광래호의 황태자’로 등극했다. K리그 주간 베스트 11에도 4차례 이름을 올리는 등 리그 성적만으로는 운빛가람이 한발 앞 서있다. 하지만 지동원이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줬던 거침없는 공격본능은 강한 인상을 남겨 신인왕의 향방은 미지수다. 지동원과 운빛가람의 ‘동상이몽’의 결과는 20일 열리는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밝혀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Dinner Show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해바라기

1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